

“텃밭에 행복 일궈요” 광주 도시농업 열풍



광주시·농식품부 텃밭사업 지원 강화
등·서구에 5803㎡ 공영농장 조성
건물 옥상 '광주형 정원' 모델 만들기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상담 서비스

광주에 도시농업(텃밭) 열풍이 불고 있다. 도시농업은 채소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재배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여기에다 소일거리 해소와 농촌의 정서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 새로운 '힐링'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도 '시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 도시농업을 확산일로다.

〈관련기사 10면〉

6일 광주시와 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도시농업텃밭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 2월부터 연말 개장을 목표로 동구(2003㎡)와 서구(3800㎡) 등 2개 자치구 5803㎡ 면적에 공영도시 농업농장을 조성중이다. 객도와 구획정리, 관수시설, 울타리 조성, 농기계 창고 등이 들어서고, 세면장과 쉼터, 화장실, 주차장, 교육장 등도 갖춰진다.

시는 또 올 초 5개 자치구와 일선 학교 등에 도시 밭에 필요한 모종과 상자텃밭 등을 지원했으며, 도심 자투리땅에 정원 만들기, 꽃·조경수 심기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심 아파트와 관공서, 학교, 사회복지시설, 유아교육기관 등에도 텃밭을 조성해 상추와 고추, 깻잎, 가지 등 평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작물부터 파프리카, 피망, 콜라비, 케일, 레드피아, 우엉, 토란 등 식재료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먹을거리 등을 키워내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건물 옥상에 '광주

형 정원(텃밭)'을 조성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다. 시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텃밭 상자나 종자 등을 나눠주는 단순한 지원사업에 넘어서 옥상 위에 관수시설 등을 접목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광주형 도시농업 모델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062-613-5306)을 만들어 농업교육부터 텃밭 상담까지 다양한 대민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정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도시농업은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은 물론 도시 열섬화 예방, 신선한 먹을거리 제공 등 긍정적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면서 “다만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식물이 말라죽는 등 흉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바쁜 도시민의 생활패턴에 맞는 옥상텃밭 시스템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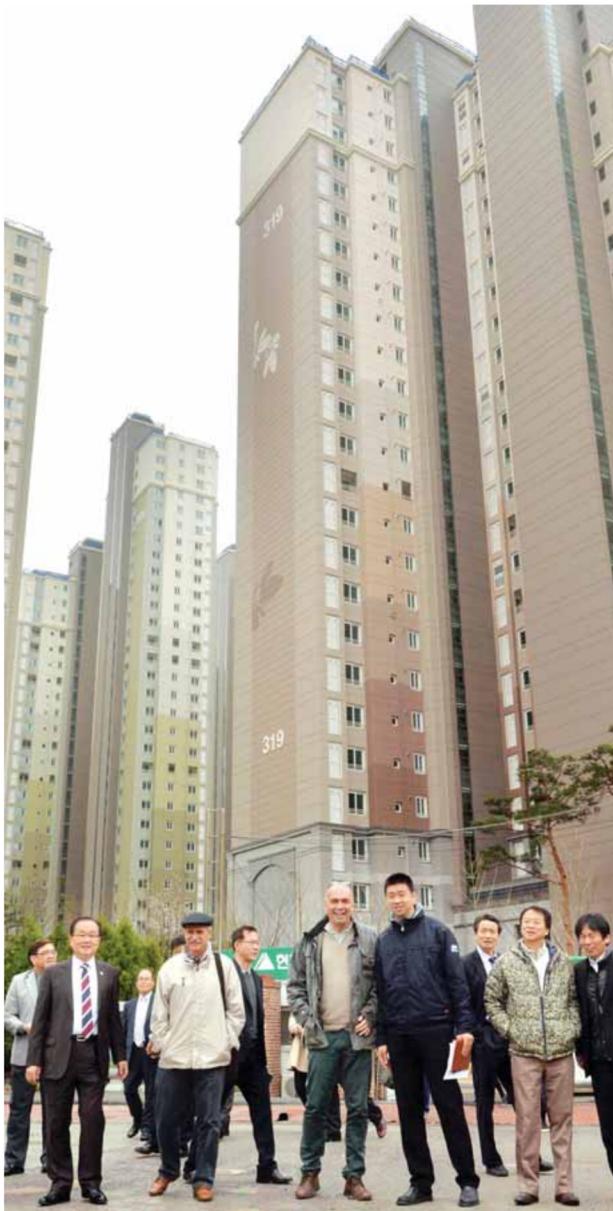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 도시민의 농사 참여를 늘려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4월을 ‘도시농업 봄 조성의 달’로 정하고 8일 국회 텃밭조성, 11일 도시농업의 날 선포 및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기간 농협에서는 시민 100만명에게 채소종자와 종묘를 나눠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광주에서 조성 중인 공영주말농장 및 학교텃밭 확대,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시텃밭을 대폭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인양 ‘급물살’

박대통령 “여론수렴 인양 적극 검토” ... 여야 대표 “인양해야” 한목소리



U대회 선수촌 점검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6일 오전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감독위원회 위원들이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들은 8일까지 선수촌과 경기장 등을 점검한다. > 관련기사 5면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여야 지도부가 선제 인양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제 인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세월호 선제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제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제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론수렴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정부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여론 수렴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선제 인양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는 물론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도

선제 인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제 인양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선제 인양에 적극성을 보여 온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정부가)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슬픔, 아픔, 괴로움을 마무리 짓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만여명에 이르는 선제를 인양할 경우 원형보존이 어렵다는 점, 천문학적 인양 비용이 든다는 점, 인양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들어 인양에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결같이 세월호 선제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해왔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과 만나 “아홉 분의 실종자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치해 환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탈당 전력 후보 경선 점수 10% 감점

총선 1년 앞... 새정치 공천론 논의 국민참여 선거인단 무작위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은 6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 탈당 전력 후보는 경선 점수에서 10%를 감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또한,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은 아웃바운드 방식(중앙당이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선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 용과 차등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당세가 강한 호남 지역의 경우, 권리당원 구성 비율을 50%로 하고 당세가 약한 영남 지역은 권리당원 구성 비율을 30% 이하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국민 60%+권리당원 40%’의 일괄적용론이 충돌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 50% 이상과 권리당원 50% 이하 비율로 경선을 실시, 총선 후보를 선출토록 당헌에 규정했다. 여기에 민생범죄자와 경선 불복자, 강력범죄자, 파렴치범 등은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정채성, 전문성, 도덕성, 기여도,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서 경선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천혁신추진단은 오는 9일 최종 전체회의를 통해 총선 료를 결정짓고 20대 총선 1년 전인 13일에 이를 발표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무등산 정상 5월 2일 개방 > 7면
강진 백운동 벌서
문화 명소로 키운다 > 16면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